

논리로 이해하는 로마서 (3)

로마서 강해 3 (유익희 목사)을 정리 및 보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한 것인가?〉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진노를 발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한 것일까요? 만일 인간들의 불경건과 불의함의 이유가 하나님이 인간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면, 다시 말해서 인간이 그럴 수 밖에 없도록 창조되었다면, 그 진노는 정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어서 결국 그렇게 살수 밖에 없었다면, 그 진노는 정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음과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인간들 자신의 책임이라면, 당연히 그 진노는 정당한 진노가 될 것입니다.

19a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b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로마서의 강력한 주장은, 이세상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알려 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누군가 전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스스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창조주’의 존재는 다릅니다. 19절b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전해주지 않아도 누구나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연과 우리의 의식 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20a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b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0절은 매우 놀라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사건들,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것들은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신성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여**] 그런데, 원래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과 높은 차원의 현상들이지만, 그것들이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과 역사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① 진화를 통해서도 저절로 우주가 창조될 수 없음과 ② 역사를 이끄시는 절대자가 분명히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인간들이 아주 알아보기 힘들게 자연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핑계 댈 수 없습니다(20절b). 18절에 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우리는 책임이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핑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이는 예 (1) : 자연 〉

우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우주의 정확한 크기는 아직 계산해 낼 수 없으나, 현대 과학이 밝혀낸 확실한 사실은, 그 크기가 일반인들은 상상하기도 힘들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주가 ‘크고 넓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저절로 생겼다 해도 얼마든지 크게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¹ 중요한 것은 우주의 크기가 아니라,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창조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우주와 자연은, 저절로 진화의 단계를 밟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분명히 ‘일부러’ 계획하여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캥거루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캥거루는 덩치가 큰 동물이지만, 새끼를 매우 작게 낳습니다. 갓 태어난 캥거루 새끼는 몸무게가 겨우 1g이고 크기도 2.5cm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작게 태어난 새끼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캥거루 새끼는 너

¹ ‘크다’와 ‘작다’는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단지 우주가 크다는 사실 만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무 작게 태어나기 때문에, 바깥 환경에서는 살 수가 없고, 어미 캥거루의 주머니 속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 조그만 새끼가 어떻게 그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미가 물어서 주머니 속에 넣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캥거루 새끼는 엄마의 자궁 속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본능적’으로 위로 기어올라 갑니다. 아직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지만, 그리고 심지어 (캥거루의 몸 중에서 가장 튼튼한) 뒷다리로

아직 없지만, 그 부실한 앞다리 만으로 ‘그 먼 곳을’ 향해 기어올라 갑니다. 태어난 즉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히 ‘주머니를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머니가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그 주머니 안으로 들어 갑니다. 엄마의 뱃속 주머니에는 자기 몸통 보다 더 큰 젖꼭지가 있는데, 그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끼 캥거루의 이런 놀라운 ‘본능’은 어디서 왔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곧장 위로 기어 올라가서 엄마의 배에 있는 주머니로 들어가라’고 누가 알려 줬을까요? 젖의 냄새를 맡고 그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직 감각 기관이 거의 발달하지 않은 새끼가 젖냄새의 방향까지 정확하게 알고 (더구나 주머니 속에 있는 젖을 향하여) 한치의 벗어남도 없이 곧장 주머니로 올라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끼의 본능에 ‘태어난 순간 위로 기어 올라가라’고 심어 놓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저런 가설을 내놓겠지만, 그 어떤 생물학적 설명도 만족할 만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게 1g에 불과한 캥거루 새끼의 본능에 이것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될 것입니다. 몸무게 1g인 새끼의 본능까지 설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20절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8: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캥거루 새끼의 행동을 ‘보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놀라우신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이는 예 (2): 역사 〉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그가 창조하신 자연 뿐만 아니라, 직접 이끌어 가시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놀랍도록 신비한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역사의 진행도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거나 인간의 뜻만으로 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D 66년, 유대인들은 로마제국에 대항하여 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네로 황제가 파견한 유다의 총독이 세금 징수의 명목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려 17

달란트를² 강탈해 가자, 이에 격분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방인이 감히 거룩한 성전에 있는 예물을 빼앗아갔으니, 유대인들의 반란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제국은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였고, AD 70년 로마제국의 끈질긴 공격 끝에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약 40여년 전,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철저히 파괴된 것입니다.

막1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성전이 이토록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설을 주도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는데 (성전의 별명이 ‘헤롯 성전’이었다), 그는 로마제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로마에 아부했던 헤롯이 건설한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된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성전의 대단함을 보고 감탄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³

막13: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² 1달란트는 6,000테나리온으로, 일반 노동자의 6000일 임금에 해당합니다. 요즘의 돈으로 환산하자면, 일 년 평균 근로일을 약 250일로 계산할 경우, 한 사람의 약 24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17달란트는 평균적인 근로자의 407년치 임금에 해당하므로 매우 큰 액수입니다.

³ 헤롯 성전은 약 BC 20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무려 30여년이 더 지난 AD 6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장장 80여년간에 걸쳐 완공된 성전이, 완공된 지 불과 7년만에 파괴된 것입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놀라운 성전이지만,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AD 135년 로마제국은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게 됩니다. 그 후로 2천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 전 세계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나라만 잃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는 곳 마다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되는데, 러시아에서 15만명이 학살당했으며, 히틀러에 의해서는 무려 600만명이 학살 당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역사가 ‘인간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만 흘러간다면, 이 민족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의 성전은 이미 2천 년 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가 되었고, 뿔뿔이 흩어진 민족은 세계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학살을 당했으니, 상식적으로 볼 때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신(神)이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당연히 사라져야 할 유대인들이 무려 2천년 만인 1948년에 독립국가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건국 과정에서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그 땅에서 살아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강제로 몰아내었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중동 지방에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선택해야 하는데, 총칼을 앞세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방법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방법적인 면에서는 무척 아쉬운 면이 많지만, 분명한 것 한가지는,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2천년을 온갖 핍박에 시달려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이라는 놀라운 사건은, 세상의 역사가 결코 ‘저절로’ 혹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인 5월 15일에 아랍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습니다. 아랍 연합군은 오일 머니로 꽤나 성능 좋은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군은 그야말로 군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민병대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의 첫 전투는 ‘니림’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소총과 구형 박격포가 전부였던 30여명의 민병대와 (그 중 상당수는 여성)

최신 무기로 무장한 800명이 넘는 아랍 군대의 전투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물론 이 전투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극적인 승리는 인류 역사 곳곳에서,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아주 희박한 확률

로 늘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면밀히 살펴본다면, 분명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

20a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b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과 신성은 원래 우리 눈에 결코 보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초월적인 것이 만물에 잘 스며들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주의 깊게 살펴 본다면 (자연을 보든지, 역사를 보든지),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8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왜냐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인정할 수 밖에 세상이 창조되었고 운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의도적 거부’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은 이것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불의가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경건하지 않은 것’이요 ‘불의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도 핑계 댈 수 없는 정당한 진노입니다.

출판 예정 중인 본 문서는, 신학생들을 위해 무료 PDF로도 제작되어 보급됩니다.
이 사역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642-910097-82405 (헤세드문서선교회)

무료 PDF는 헤세드교회 웹사이트 (<http://hsdch.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